
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해명자료</b>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8.2(금) / 총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항공교통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유경수, 항공사무관 권혁진 ·☎ (044) 201-4292
	항공운항과	<b>담당자</b>	·과장 김상수, 기술서기관 김봉진 ·☎ (044) 201-4279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대한항공 관제허가 없이 이륙...국토부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□ 8월2일 ‘대한항공의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없이 이륙’한 사실에 대하여 국토부가 봐주기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국토부는 7.11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관제탑 허가 없이 이륙한 사건의 발생 보고를 관제기관(인천관제탑)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접수한 후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안전장애로 판단하여 사실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.

\* 안전보고 접수 일시 : 인천관제탑('19.7.12 10:13), 대한항공('19.7.19 17:44)

□ 또한, ‘유도로 오진입 대한항공 베이징공항 7건 발생, 국토부 집계는 제로’와 관련하여 국토부 자료는 ‘활주로와 유도로 오진입’에 대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가 국토부로 의무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통계이며,

○ 베이징공항의 통계자료는 ‘관제지시 불이행’ 전반에 관한 통계로서 국토부의 자료와 다를 수 있으며, 현재 대한항공의 의무보고 불이행 사례 등을 포함하여 사실 확인중에 있습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, 안전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규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NEWS1, 8.2.(금)) >

- ◆ 대한항공 관제허가 없이 이륙...국토부 봐주기? '의혹 점화'
  - 7.11 대한항공 여객기 인천공항 관제탑 허가없이 이륙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대한항공의 신고의무를 어겼으나, 국토부의 관련법 적용 의혹
  - 활주로 오진입 등 규정 위반 집계도 베이징공항의 집계와 달라 관리 허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권혁진 사무관(☎ 044-201-41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